東大新聞

發行人 鄭在覺
編輯人 趙熙榮
印刷人 方又榮
主幹 金光鎭
編輯局長 金容培
編輯部長 朴元培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 8131~9
本社直通 ☎ 8577

每週火曜日發行

學位授與式 26日 擧行

새學士 1천2백63名 사회에 첫발

博士 7、碩士 1백22名 학위획득

首席卒業 金東昇(國史敎。4)君 차지

80學年度 學位授與式이 26일(木) 오전 11시 본교 대운동장에서 擧行된다. 이 날의 行事에는 鄭在覺 총장을 비롯하여 財團 宗團, 同窓會및 내외의 각계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學士 1천2백63명 博士 7명, 碩士 1백22명이 學位를 받게된다.

임인두(造景。4)君 등 31名 功勞賞표창

이날 행사에는 평점 4·11(만점 4·50)로 전체 수석졸업을 하는 金東昇(국사교·4)군을 비롯한 8명의 단대별수석졸업자가 총장상을 받게되며 前사단장 李鍾根군을 비롯한 학도호국단간부들이 공로표창상을 수상하게된다.

각 단대별 수석졸업자는 불교대 方貴姬(불교)군 문리대 張鍾珉(물리)군 법정대 李鐵孟(경정)군 농림대 金輝榮(조경)군 공과대 林義善(건축)군 사범대 金東昇(국사교)군 부대 崔榮喆(회계)이며, 박사학위수여자는 문학박사에 金東俊(불교)교수 林基中(경기대)교수 申採湜(중국사대)교수, 이학박사에 吳泰浩(한양대)교수, 농학박사에 裵相億(회사원) 趙榮煥(교교조교), 공학박사에 金鍾益(숭전대)교수이다.

한편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및 이날 수상하는 수상자 이름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국문)학과 (사학)학과 (불교)학

東大精神의 實踐者

—學位授與式에 부쳐

사설

우리 民族文化의 중추적 요람인 東國大學校는 이 民族의 體驗한 榮光과 온갖 영욕, 그리고 환희와 비애를 民族과 더불어 나누면서 民族 國家 社會를 主導해 온 人材를 길러왔다。이제 國內外的인 격동속에서도 또다시 東大敎育의 所重한 結實을 民族社會에 배출하게된 것은 東國人의 영광이며 아울러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지니게되었다。

먼저 우리는 여러가지 악순환속에서도 부단한 刻苦勉勵의 精進으로 所定의 敎育과 硏究 또는 그 과정을 마치고 學士·碩士·博士학위를 수령하고 情熱을 校門을 나서는 졸업생 여러분의 前途에 榮光이 깊이하기를 축심으로 기원한다。

大學에서 所定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다는 것은 「새로운 始作」을 의미한다。工藝品이 일정한 根本的으로 다듬어져 製造되듯과는 機械的인 존재가 아니다。不斷히 자기향상을 도모하는 有機體이다。졸업식은 따라서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삶의 새로운 場」으로 進入하는 慶祝式이다。이제부터 졸업생들은 大學時代에 가꾸어온 드높은 理想을 묵묵히 자기발전을 결의해야한다。

흔히 졸업과 동시에 世俗的인 유혹에 함몰되거나 젊은날의 꿈을 저버리는 일이 있다。理想과 現實間의 갈등속에서 現實主義에 굴복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러한 風潮가 支配的인 시대에는 墮落과 腐敗만을 초래한다。동일을 구가하는 一部 國家가 보여주는 人間沙漠풍경에서 우리는 이를 實際하는 터다。비젼이 없는 社會는 별망을 自招한다。사람도 나름밖가 없다。비전을 상실한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게되고 그것은 드디어 꿈이 메마른 社會로 전락하게 만든다。

우리는 지금 여러가지 시련과 위협에 직면해있다。불안정한 國際情勢와 休戰線上의 緊張狀態, 經濟成長에 있어서도 극복되어야할 허다한 難關이 介在하고 있다。따라서 그 어느때 보다도 졸업생들의 장래는 험난할 것이고, 日前의 就業難도 한층 심각하다。이 현실에 굴복하고 漂流할 것인가, 아니면 理想實現이라는 高地를 향하여 揮身의 熱情과 근건한 의지로 이 어려움을 創造的으로 극복할것인가。

졸업생들은 분명히 東大敎育의지표가 무엇이었던가를 다시한번 명심해야한다。「智慧의 體得」과 「慈悲의 實踐」그리고 「不退의 精進」등, 이 세가지로 要約되는 德目이 그것이다。東國人의 心像에 부각된 이 德目은 바로 우리나라 있는 現實的인 難關을 푸는 기본정신이 되어야하고 확실하다。

여러분은 大學敎育을 받은 소수의 선택된 人材들이다。그러나 졸업이라는 영광된 오늘이 있기까지는 뒷바라지를 헌신적으로 해준 父母와 그 학문적 방법을 익혀준 愚師들, 여러분을 지켜준 國家와 社會의 따스한 배려가 있었음을 인식해야한다。이렇게 보면 福된 民族과 大學 그리고 家庭에 대하여 본분의 빚진 젊은이들이다。

빚진 젊은 빚을 갚아야할 부거운 책임을 통감해야하고 스스로 그들 감당해야한다。선택된 졸업자의 使命感과 긍지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어려분이 보람을 찾게 될 社會는 「正義와 福祉」로, 오락될 수 있고 이것은 實力과 勤勉을 요구하는 能力社會로 표현될수 있다。正義와 福祉社會의 건설은 民主國家의 固有的인 所望이며 人間의 自由로운 社會이다。그곳에서 人間의 尊嚴性은 무엇보다 重視되고 社會正義의 理想은 실현되는 그런 社會이다。이 理想이 곧 智慧롭게 發展하는 佛敎의 理想이기도하다。慈悲는 奉仕와 犧牲으로 人間關係의 基本으로 삼는데서 發揮되는 크나큰 사랑이다。慈悲無敵이 된다。慈悲를 實踐하는 이에게는 奉仕와 犧牲의 기쁨과 信賴의 꽃밭이 안겨지는 것이다。東大敎育의 大精神의 이러한 높은 理念을 旗幟삼아 삶의 긴 항로를 즐기차게 前進할 때, 비로소 東大人의 참된 면모를 明白히 할 수 있다。

현대는 분명히 能力社會이다。능력사회는 그 開發 또 충만한 발전적인 人間型을 要請하고 있다。스스로의 目標를 넓힘한 理性과 長期的인 眺望에서 自律的으로 設定하고 면밀한 계획속에서 成就의 기쁨을 體得해야 한다。여기에는 날카로운 知識의 貧的인 探化와 뛰어난 知識과 技術을 함께 겸비한 社會人이 필요하다。그러므로 「삶의 새로운 場」을 향하여 새로운 知識과 技術을 배우기 始作한다는 것을 意味하기도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졸업생들은 의연하게 校門을 나서게 된다。현實社會는 不信과 虛偽, 치열한 生存競爭과 천박한 現實主義者가 가득하는 싸움터나 다름없다。그러나 스스로 精誠을 다하여 正面하게 努力할 때, 현실社會는 결코 각박한 것만도 아니다。難關앞에서 쉽게 挫折하는 축, 포기하는 쪽가 되어보다는 감연히 應戰하고 理想을 向하여 不退의 精進을 할때, 榮光된 勝利는 그의 것이 되고 東大精神과 함께 빛날 것이다。

졸업생들은 名門 東國을 母校로 삼는 同門의 一員으로 이제 出帆

정년퇴임교수석

학생들의 "마라톤"에 생활양성의 관람자들

鄭 璡 〈문리대교수·서양철학〉

"山에서 얻은 敎訓으로 고난 이겨"

1938년 철학과에서 서양철학을 전공한 후 23년간을 母校에 재직해오다 이번에 퇴임하게 된 鄭璡(문리대철학과) 교수는 실존철학의 하이데거만 연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도 아래서 우리들을 찾는 의자에 앉아 동양사상의 방법을 통해 다듬어 보기 위해 연구하는 학자이다.

이런 특기로 해서 꺼번다 조국 사상의 교수는 孔子思想을 중심으로 「연구해 온 鄭 학위논문으로 「孔子思想의 人間學的 硏究」와 著書로 「孔子 의 또한 敎育思想」을 펴내기도 했다. 한국학을 부흥시키려는 추세가 작년에 「한국공자학회」를 결성하고 초대 회장직을 맡고 있는 同학회는 孔子를 중심으로 「노력을 東洋哲學의 근원을 찾기 하고 있다고 한다.

山을 남다르게 좋아하는 鄭교수는 「山岳운동은 단순한 육체적인 스포츠라는 차원을 넘어 내정신과 의지의 단련을 꾀하는 인생수련도장의 역할을 띠게 유도되어야 하며 이런 차원에 국민운동화시켜야 한다」며 일가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山에서 얻은 단 鄭교수 자신도 「어렸을 때 고난을 극복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60년대말 「수망막리증」라는 하 眼疾로 4번의 「수술을 하고 실명까지 갈 고비의 수험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그에라고 덧붙인다. 조교에게 구술한 그때의 투병기인 「아직도 현역」가 「신동아」에 당선된 적도 있다고. 이 투병기는 「전환기의 철학」 「고뇌의 철학」에서 이겨낸 鄭교수의 2권 의 철학에세이집중 추자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인생의 나락속에서 「共고뇌의 공간형성」이라는 명제의 실체를 체험을통해 얻었다고 전제한 鄭교수는 「고뇌는 인간을 좌절시킬수도 있지만 발전시킬수도 있다」고 고뇌의 철학에 대해 얘기한다.

정년퇴임후에도 본교 대학원과 원광대에는 전임으로 계속철학과 강의하게 되는 鄭교수는 「허상을 몰리지고 신념에 가득찬 고뇌의 바탕위에서 우리네는 것만을 말하라」며 학생들에 남기는 부탁을 마지막으로말을맺는다. 〈璡〉

李 龍 澤 〈경상대교수·회계학〉

"80여 회계사 배출이 가장 큰 보람"

옛날 서당선생님의 모습이랄까 소박한 우리 기자일행을 반갑게 맞이해주셨다. 「내 제자들 나가지만, 방생님께 폐끼치지 않도록 고락을 같이해온 거의 인 꼰이어서 그런지 떠나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허허…」30년 넘도록 고락을 같이해온 거의 인 생이다시피 서운하셨던 모양이다.

日本 「明治大」 商科를 졸업하시고 1954년 4월 본교에 전임강사로 부임하신이래 商大學학장을 지내신 李龍澤교수는 그간 80여명의 공인회계사를 배출시킨 것은 최대의 무기이자 보람이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이런한 제자들이 잊지않고 찾아주어 의욕적 않음을 느끼게 해줄때 담연 흐뭇하고 교육자의 보람을 느끼셨단다.

한편 오직 本校발전에 힘을 써 온 李교수는 「각광받는 신체가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듯이 학교도 수시로 건강진단을 해야 한 것이니다」라고 大學의 자체반성이로 해야 한다」며 성의있는 교수의 부족을 일깨우기로 하셨다.

원 석사과정에 회계과를 두고있는 本校이니 만큼 전문학자를 양성, 타교보다 뛰어난 회계과를 만들고 싶었다」며 후학양성에 큰 보탬이 되지로활을 안타깝게 여기셨다. 이로 72년에는 유일하게 재단이사회에서 수여하는 「대학발전공로상」을 받기도 하셨으며, 79년에는 「대한민국 교육공로상」 대통령표상을 받아 그의 교육에 의의를 한층 빛내기도 했다. 또한 의모에서와같이 꼿꼿이 지조를 지키며 사시겠단다. 〈寬〉

尹 乙 順 〈사범대교수·가정경제학〉

"자신을 가꿔 사랑받는 사람되길"

『늘씬요. 지금까지 학교생활로 인해 묶여있던 모든 규제장치에서 벗어나 大海로 들어가는것 뿐입니다』 퇴임을 한다해도 우선은 出國을 계속하게 되니 떠남이 아닌듯 싶다고 그렇게 점점하지는 않는다.

1952년 본교 경상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나서 행정부에 있었던 몇년을 제외하고 19년간을 오로지 모교의 강단에 서있었던 尹乙順교수(師範大家政科·무역학전공)의 정년퇴임소감은 무척 담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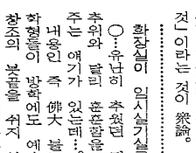
61년에 발족된 東女會의 초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尹교수는 늘 모교 여학생의 발전을위해 노력, 카桂山동문과 함께 속해 여학생회관을 짓기도했다.

옛날 한국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도 경제력을 갖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사는 이유는 경제의식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경제학파에 진학, 가정경제학을전공했다는 尹교수는 「男女는 평등하므로,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은 女性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전선에 진출하는 여성이 많을수록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발표력을 기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고.

1男1女의 자제분을 둔 尹교수는 비교적 고적한 가족관계때문인지는 몰라도 강의실의 학생들이 발제력을 느끼졌고 또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일을 해야한다는 평소의 신념때문에 없었단다.

학교생활속에 여가가 생기면 짬을 찾아 마음의 수양을 쌓고있었다는 尹교수는 퇴직후에는 농사를 지으며 소일하겠다는 한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에티켓이부족해요. 우리 고수의 아름다움에 젊을 의면한 거친 언행을 많이 볼수 있는데 자신을 스스로 가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지요.」 尹교수는 퇴임의 자리에 섰지도 두 제자들인 東女人이다한 격정이 지극하다.



졸업생 就業 현황

80학년도 졸업생 취업률이 81년 2월20일현재 67·7%로 전년되었다. 각대학별로 살펴보면 불교대학이 52%, 문리과대학이 67·8%, 법정대학이 89·7%, 경상대학이 90%, 농과대학이 41%, 공과대학이 54·5%, 사범대학이 65·7%, 二部大學이 81%이다. 이는 大學院進學및 군인대등 포함한 것으로 작년의 75%~80%에 비하면 크게 부진한 상태인데, 그 이유로서는 계속되는 유류파동등 국외적인 요인과 기업체들의 긴축운영등 국내적인 요인으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비롯되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저조한 취업에도 가장 높은 취업률을 나타낸 대학은 經商大學으로서 이미 90%를 기록했으며 現在에도 계속 추천의뢰가 들어오고 있으나 의례 人員이모자라 추천을 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라 한다. 여기에서 경상대학 졸업자는 어전히 일반기업 금융업에 입기가 있음을알 수있다. 다음은 法政大學으로서 거의 같은 수준인 89·7%이며 직종별 순서로는 공무원 일반기업 敎大學 工科大상등이다. 農科大學의 경우에는 졸업자수의 반도 취업이 안되어었는 형편인데 교학과는 81년1월25일 현재 4명만이 졸업후의 거취를 결정하였을 뿐이다. 佛敎大學의 S學科는 전원이 학전제에서 6명만이 취직이 결정되었다. 工科大學은 일반기업 금융업 및 學院진학, 자가사업의 순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T學科가 가장활발한 취업률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80학년도 졸업예정자 취업현황

대 학	졸업예정자	취업자	%
불교 대 학	84	44	52 %
문리과대학	199	135	67.8%
법정 대학	146	131	89.7%
경상 대학	230	207	90 %
농과 대학	113	47	41 %
공과 대학	339	185	54.5%
사범 대학	190	125	65.7%
이부 대학	89	72	81 %
계	1,390	946	67.7%

◇자료제공 : 학생생활과 (81년 2월20일현재)

學問앞에서는 겸손한 자세지녀야

考試와 大學時節

鄭 賢 朝

法政大 학생이면 누구나 考試라는 것을 한번들은 생각할것이다. 물론 他學問을 전공하는 학생도 考試에 합격하기도 한다. 내가 이러한 글을 쓰게 된 것은 考試에의 합격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다. 다만 뜻한 바를 이룬 과정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을 뿐이다.

大學은 정말 튜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는 곳이다. 靑春의 날개를 타고 푸른하늘로 어디든 날아갈 수 있을것만 같은때문이다. 그러나 人生은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니며 만족한 것은 아니다. 오늘은 어제와 내일 사이에 있는 것이다. 또한 社會는 새로운 制度의 發展을 필요로 하며, 學問은 새로운 理論을 요하며, 大自然 속에는 아직도 未知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이다.

大學生은 아니 젊은이는 단순히 즐거움만 추구하며 浪漫만을 즐기며 안일한 生活만을 할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 스스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보다는 기쁨이 더욱 컸다.

그러나 몰은 항상 슬쩍 지쳐 있었다.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자 考試準備로 자리를 옮기려고했으나, 이미 다들 꺾쳐있었다. 할수 없이 讀書로 생활을 하였다.

決戰의 날은 결정 되었다. 10月 28~30日. 10月은 體力의 회복을위해 집에서 책을 읽었다. 試驗 3일간을 클라스 메이트인 영석군의 집에서 묵으며, 3일을 거의 새웠다. 결과는 合格이었다. 그러나 석차가 合格하지 못하여 애석하기 이지리에 오르기 위해 그 몇날밤 을 지새웠는가? 기쁨에 앞서 처연한 생각이 든다. 敎授님들께 가장 감사하며 父母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랑하는 後輩들아 그대의 靑春期를 진실하게 살아가라. 그대의 來日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라. 특히 考試에 도전하고 싶은 後輩가 있다면, 시험에 合格하기에 앞서서 合格할수 있는 人間이 되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時間과 多量의 知識을 考試는 要하기 때문이다. 먼저 學問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지녀라. 또 쓰러져도 또 일어서라. 나나이의 세계가 가장 중要한 姿勢라고 생각한다. 그것에는 계획을세워서 꾸부하라. 考試뿐만 아니라 個人 企業體등에 就職하는 完備함을 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후배들에게 충고하라고 하고 싶은 것은 講義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이제 원하던 고시에 合格하여 學校를 떠나며, 다시 한번 장래學長님과 학과장님이신 이순용 교수님, 지도교수님이신 백봉흠교수님, 그리고 고시반 지도교수님이신 정용길 敎授님과 그외의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母校의 무궁한 발전과 후배들의 學問의 日就月將을바라다.

〈전주대법학과〉

行試 일차시험 합격날 저녁, 친구들과 비우는 술잔은 感激을 마시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비우는 술잔은 感激을 마시는 것 이었다.

다음날 고시반 지도교수님이신 정용길교수님과 다른 교수님께 인사를 드렸다. 더욱 더 鼓舞的인 지도도 未知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이다. 大學生은 아니 젊은이는 단순히 즐거움만 추구하며 浪漫만을 즐기며 안일한 生活만을 할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 스스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보다는 기쁨이 더욱 컸다.

그러나 몰은 항상 슬쩍 지쳐 있었다.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자 考試準備로 자리를 옮기려고했으나, 이미 다들 꺾쳐있었다. 할수 없이 讀書로 생활을 하였다.

決戰의 날은 결정 되었다. 10月 28~30日. 10月은 體力의 회복을위해 집에서 책을 읽었다. 試驗 3일간을 클라스 메이트인 영석군의 집에서 묵으며, 3일을 거의 새웠다. 결과는 合格이었다. 그러나 석차가 合格하지 못하여 애석하기 이지리에 오르기 위해 그 몇날밤 을 지새웠는가? 기쁨에 앞서 처연한 생각이 든다. 敎授님들께 가장 감사하며 父母님께 영광을돌린다. 사랑하는 後輩들아 그대의 靑春期를 진실하게 살아가라. 그대의 來日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라. 특히 考試에 도전하고 싶은 後輩가 있다면, 시험에 合格하기에 앞서서 合格할수 있는 人間이 되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時間과 多量의 知識을 考試는 要하기 때문이다. 먼저 學問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지녀라. 또 쓰러져도 또 일어서라. 나나이의 세계가 가장 중要한 姿勢라고 생각한다. 그것에는 계획을세워서 꾸부하라. 考試뿐만 아니라 個人 企業體등에 就職하는 完備함을 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후배들에게 충고하라고 하고 싶은 것은 講義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이제 원하던 고시에 合格하여 學校를 떠나며, 다시 한번 장래學長님과 학과장님이신 이순용 교수님, 지도교수님이신 백봉흠교수님, 그리고 고시반 지도교수님이신 정용길 敎授님과 그외의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母校의 무궁한 발전과후배들의 學問의 日就月將을바라다.

〈전주대법학과〉

景氣침체로 인해 就業난조 보여

卒業生들, 學校와 긴밀한 연락 통해 취업꾀해야

금년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률이 부진한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현업들이 난타받는것 같다. 취업률은 전년도 보다 75%를 상회할것 이라는 게속들어 앞으로취업률은 계속 높아지는 것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입시 수학을 쏟은만큼 큰 체력이고 적극적인 대처 꾸부하기위해 불퍼 무척 저조한 것으로서 졸업자는 가 필요하다. 예를들어지난 12月말부터 1月초까지 本校에서는 국내 2학기 교과과정에 이러한 어려운 경기에 적응하기 위해 졸업자는 어전히 경상대학 졸업자가 일반기업 금융업에 입기가 있음을알 수있다. 다음은 法政大學으로서 거의 같은 수준인 89·7%이며 직종별 순서로는 공무원 일반기업 교학과는 81년1월25일 현재 4명만이 졸업후의 거취를 결정하였을 뿐이다. 佛敎大學의 S學科는 전원이 학전제에서 6명만이 취직이 결정되었다. 工科大學은 일반기업 금융업 및 學院진학, 자가사업의 순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T學科가 가장활발한 취업률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경제적인 불황으로 취업률이 부진한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현업들을 불황탓으로만 돌려 놓부하기위해 圖史교육과를 개설했다.

또한 金군은 시간에 구속받는 것을 싫어해 틀이 나그대로 모임을 했으며, 낮보다는 밤시간을 더많이 이용, 그러나 몰은 기쁨이 더욱 컸다.

그러나 몰은 항상 슬쩍 지쳐 있었다.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자 考試準備로 자리를 옮기려고했으나, 이미 다들 꺾쳐있었다. 할수 없이 讀書로 생활을 하였다.

決戰의 날은 결정 되었다. 10月 28~30日. 10月은 體力의 회복을위해 집에서 책을 읽었다. 試驗 3일간을 클라스 메이트인 영석군의 집에서 묵으며, 3일을 거의 새웠다. 결과는 合格이었다. 그러나 석차가 合格하지 못하여 애석하기 이지리에 오르기 위해 그 몇날밤 을 지새웠는가? 기쁨에 앞서 처연한 생각이 든다. 敎授님들께 가장 감사하며 父母님께 영광을돌린다. 사랑하는 後輩들아 그대의 靑春期를 진실하게 살아가라. 그대의 來日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라. 특히 考試에 도전하고 싶은 後輩가 있다면, 시험에 合格하기에 앞서서 合格할수 있는 人間이 되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時間과 多量의 知識을 考試는 要하기 때문이다. 먼저 學問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지녀라. 또 쓰러져도 또 일어서라. 나나이의 세계가 가장 중要한 姿勢라고 생각한다. 그것에는 계획을세워서 꾸부하라. 考試뿐만 아니라 個人 企業體등에 就職하는 完備함을 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후배들에게 충고하라고 하고 싶은 것은 講義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이제 원하던 고시에 合格하여 學校를 떠나며, 다시 한번 장래學長님과 학과장님이신 이순용 교수님, 지도교수님이신 백봉흠교수님, 그리고 고시반 지도교수님이신 정용길 敎授님과 그외의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母校의 무궁한 발전과후배들의 學問의 日就月將을바라다.

〈전주대법학과〉

佛大首席 방귀희양

全體首席 김동승군

화제의 인물

生活의 길 열어준 학교에감사

學問의길 열어준 學院진학후 敎授되고 싶어

생각지않은 首席이라 더기뻐

「부처님, 지도교수님, 그리고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려요. 생각지도 않았던 수석이고보면 너무 뜻밖이라 얼떨떨하기만 해요」 평점 4·5만점에 4·11을 기록, 금년도 본교졸업 수석으로 졸업하게되는 金東昇(사범대 국사교육과)군의 첫소감이다.

「입마전 치른 문교원교사련에 합격하여 장교가 되거든 대학원 위탁교육을 거쳐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는 金군은 茶山 정약용의 정신을 꿈부하기위해 圖史교육과를 택했다.

또한 金군은 시간에 구속받는 것을 싫어해 틀이 나그대로 모임을 했으며, 낮보다는 밤시간을 더많이 이용, 그러나 몰은 기쁨이 더욱 컸다.

그러나 몰은 항상 슬쩍 지쳐 있었다.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자 考試準備로 자리를 옮기려고했으나, 이미 다들 꺾쳐있었다. 할수 없이 讀書로 생활을 하였다.

決戰의 날은 결정 되었다. 10月 28~30日. 10月은 體力의 회복을위해 집에서 책을 읽었다. 試驗 3일간을 클라스 메이트인 영석군의 집에서 묵으며, 3일을 거의 새웠다. 결과는 合格이었다. 그러나 석차가 合格하지 못하여 애석하기 이지리에 오르기 위해 그 몇날밤 을 지새웠는가? 기쁨에 앞서 처연한 생각이 든다. 敎授님들께 가장 감사하며 父母님께 영광을돌린다. 사랑하는 後輩들아 그대의 靑春期를 진실하게 살아가라. 그대의 來日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라. 특히 考試에 도전하고 싶은 後輩가 있다면, 시험에 合格하기에 앞서서 合格할수 있는 人間이 되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時間과 多量의 知識을 考試는 要하기 때문이다. 먼저 學問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지녀라. 또 쓰러져도 또 일어서라. 나나이의 세계가 가장 중要한 姿勢라고 생각한다. 그것에는 계획을세워서 꾸부하라. 考試뿐만 아니라 個人 企業體등에 就職하는 完備함을 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후배들에게 충고하라고 하고 싶은 것은 講義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이제 원하던 고시에 合格하여 學校를 떠나며, 다시 한번 장래學長님과 학과장님이신 이순용 교수님, 지도교수님이신 백봉흠교수님, 그리고 고시반 지도교수님이신 정용길 敎授님과 그외의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母校의 무궁한 발전과후배들의 學問의 日就月將을바라다.

〈전주대법학과〉

졸업생들 앞길에 영광 있으시길

임시졸보 전략 異常 有(?)

○:너다란 변화 후에 치루어졌던 81학년도 대학입시의 뒷얘기는 임시제도의 변화만큼이나 많았는데…

이 변화에 대응, 우수학생을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본교에서는 많은이나 호국단측에서 「홍보위원회」를 발족, 많은 활동을 전개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사실.

허나 막상 입시가 끝나고 前期로 접화한 東國을 찾아온 入試生들을 보는 東國人들의 눈동은 「하기사 하도 잔잡기(?) 힘든 실험인시(?)여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다행이 탈사태는 모면했다 하더라도 고득점자의 층이 엷은 것은 「입시홍보」에 총력을 쏟은만큼 큰 수확을 거두지는못했다는 안타까움을 입증한 셈. 「이왕 부려진 씨니 거두기나 잘 거두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衆論.

확장실이 임시실기실로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추위와 달리 훈훈함을 느끼게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네용인 즉 佛大 불교미술과의 학형들이 밤학에도 예술을 위한 창조의 불꽃을 쉬지 않고 실기실을 열기로 메웠다는것. 그런데 실기실에 난방이 되어있지 않아 몰잔도 열 지경이어 난로가 설치되어 있는 확장실을 임시실기실(?)로 이용했다고.

예술을 위한 집념에야 추위가 무색하겠지만 봉급까지 얼어드는 고생이야 짐작이 간다면서 실기실의 난방시설치의 필요성을강조하는 J학형의 말은 당연할듯.

졸업이사 가득한 東岳

○:요즘 東岳의 곳곳에서는 묵년 한해가 지나면 새해는 어김없이 밝아오는 것. 우수갈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삶이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인듯.

요즈음 東岳의 졸업식장에는 다가온 졸업식을 대비해 오가는 學兄들의 발길은 바삐기만. 만나는 사람마다 졸업식하자와 더불어 東岳의 회제의 꽃이 만발하는데, 이에 本 회장은 대구 사회에로의 첫발을 내딛는 많은 학형들의 앞날에 발전과 영광 있으시길…」

도서관 텅빈 이유가…

○:放學 중에도 不校敎을 이루던 도서관이 요즘와선 칠지난 해수장갈아 텅빈 의자들이 主人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애기를 들고보니 아연실색할 유가 있어 뜻있는 東國人들의 비성을 사기도. 이유인즉은 며칠전 막을 내린 각 대학의 편입시험이 끝나 더이상 도서관을 일을 사양(?)한 學兄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편입시험으로 빌릴 것이다. 그러다도 母校를 떠나 다른 대학에 가려는 學兄들은 배반(?)하는 罪를 면치 못할 것 같은데 신학기 교과과정에는 「母校사랑」이라도 넣어야할 듯.

"졸업생들 앞길에 영광 있으시길"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갈등의 실화 휴전도 올어버린 20世紀 最高의 갈등물!!

제독의 딸

(株)語文閣 ₩2000

汎友에세이文庫 마포구 신수동 445-5 (34)2121·(35)5151

우편도 500원 第一回配本大賞受賞 100권 순차!

◉빅토리아 표도로바 지음 ◉한 영탁·황 의방 옮김

고전적인 전쟁 로망스가 가져다준 비련의 연인들과 그들의 사랑스런 딸이 완성한 러브스토리. 그리고 행복한 결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이야기가 될 것이다.

-더 선데이 페넌슬라 헤럴드지-

우리를 침묵하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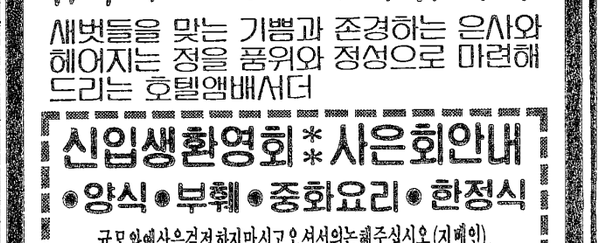
-산 디에고 트리뷴지

엄청난 대작이다. 드물게 보는 작품이다.

-시카고 선 타임지

당신을 압도하는 책이다. 당신은 이책을 보고 압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시카고 선 타임지



여러분의 입학과 졸업을 축하합니다.

새벗들을 맞는 기쁨과 존경하는 은사와 헤어지는 정을 품위와 정성으로 마련해 드리는 호텔앰배서더

신입생환영회 ** 사은회안내

●양식●부훼●중화요리●한정식

규모와예산은걱정하지마시고오셔서의논해주십시오(지배인).

그랜드볼룸(800석), 쥬엘룸(200석)
특히 4층 도라지룸(70석)을 비롯하여 로마노 1호실(150석), 2호실(200석), 3호실(150석) 5호실(100석), 7호실(60석), 8호실(80석) 등 연회실 완비

예약문의는 261-1101 269-6111 구내 123-5

同窓会, 同門会, 月例会를 위한 소집, 연락등 업무대행써비스

호텔앰배서더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186-54

안경은 시력따라 광신안경 ▲교도근시 ▲백내장용 광교종간 ☎ 555

대학생·成人을 위한 英語 Training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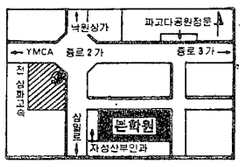
時事英語社 直營

현대외국어학원

英·日

● TIME, Digest, TOEFL, AFKN청취, Vocabulary Word Power, TV DRAMA, TOEFL 留学考試 大学英語特講, 성문綜合英語, 英文讀解, 英作文 大学編入英語, 留学英作文, 構文解釈, 三位一体
● 日本語初級, 日本語中級, 日本語 高級
● English 900会話, W.T.E. 会話, 生活英語会話

3月2日 개강 수시등록 ☎(269) 6626~7



현대외국어학원 時事英語社 直營입니다

"이별이게, 아주 영 이별은 말고 다시 만나기로 하는"

卒業有感

이 은 심

무엇이라 할까。觀念과 현실의 4대1 비율로 된 혼합 반죽의 무엇이나 제대로 빚어낼수 없는 모양의 피로에 잔뜩 지친 신경 마냥의 연거 붙은 생 피 떨어리。아니면 채 여물지 못한 계절의 함께 추수되어 말라 비틀어진, 야위어 보잘 것없는 곡식의 낟알들。던는 기대할수 없는 所望의 풀가지, 절정에 다달아 숨가쁜 한계 상황의 여기 저기서 내뱉아 지는 한숨과 울분의 悲鳴들。

어지럼증 눈 가루에 제멋대로 날리면 판넬아—板壁의 무지속에 저절로 녹아 버리는 짧고 덧없는 몸속의 몸。유명무실의 마지막 탐식속에 들여져 내리는 감정의 戲遊 아니면 그 不條理의 실무룩문이었을까。

세해 별두의 뜀잡이 현란하던 젊음의 눈부신 閃光。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젊음, 그 자체인 네가 자랑하는 매혹의 장식은 時間의 급한 여울물속에 휩쓸려떠내려 가는 것。당연, 거울속의네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그 나름으로 不條理의 진실한 체험을 부르는 손짓이 되겠지만 自然을 인간에게 그러한 경험을 현시리 제공하려는 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때까지 네안 깊속 의 현실을 위하여 이상을달 절실할 수도 없이나, 그 귀중한 생명의 아껴 키움이 모든이에게 다 중한 까닭이며 고유한 인간 이상인 가치로운 삶을 모두 내 팽개쳐 버릴은 인간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자마다의 절실한 손맛을 외면하는것이기때문이다。

兩立無一의 극단속에 살고 있어서 순수한 인간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적임을 수없이이야기했다。자율적인 사고를 통하여 사실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과 비판력을 기르고 거짓과 불의에 대하여 용기있게 행동하는것을키워왔다。이것을 외치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나가려 할때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의 길이에 이르면 그것은 너의 회한을 되씹어 송곳 곳처럼 마구 가슴을 후벼 든다。

물론 시대의 절박은 未來들의 현재를 희생시키려 들지않으며 현재는 현재대로 충분한삶의 밑뿌리를 향야 한다지만 「Here and Now」의 現實主義가 가져오는 것은 더 깊이 삶에 대한 공허와 무의미를 되씹게할 막다름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찾고자하는 절실한 손맛앞에 서게 한다 면 그 나름으로 不條理의 진실한 체험을 부르는 손짓이 되겠지만 自然은